

한반도 동북지역 뇌문토기 변천과정

김 재 윤

(러시아 과학원 극동분소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연구소 박사과정)

I. 머리말

II. 뇌문토기 검토

- 연구현황과 문제제기
- 자료 검토

III. 동북지역 뇌문토기의 형성과정

- 속성분석
- 선행작업: 서북지역 뇌문토기의 편년
- 동북지역 뇌문토기의 편년과 확산
- 지역적 병행관계

IV. 맺음말

국문 초록

필자는 동북지역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이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뇌문토기를 고찰하였다.

뇌문토기는 현재까지 서북지역 신석기 후기 편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동북지역 뇌문토기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동-서 지역의 병행관계 설정이 가능한 자료이다. 따라서 서북과 동북의 자료를 모두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동북지역의 뇌문토기 계보와 변천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뇌문토기의 속성을 추출하고 편년작업을 실시하였다.

각 지역의 뇌문토기를 살펴본 결과, 동북지역 뇌문토기는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 서북지역은 3기로 나누어지는데, 속성분석에 따르면 서북 지역 2기에 해당하는 뇌문토기가 동북지역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지역 뇌문토기는 두만강 유역에서 초현한다. 전체적으로 4기로 나누어지는데, 2기에 계열 분화되며 3기가 되면 남연해주 내륙으로 확산된다. 남부 연해주에는 뇌문토기 4기, 신석기 말기 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서북지역, 동북지역, 서북 뇌문토기 3기, 동북 뇌문토기 4기

I. 머리말

1990년대 말 대대적인 발굴조사로 인해 청동기시대 고고자료들이 폭증했고, 이를 해석하려는 노력이 다각도에서 실시되었다. 특히 선행연구 이후 거의 답보 상태였던 ‘청동기시대의 형성’에 관한 제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사리유적과 남강댐수불지구가 조사되면서 남한 고고학계는 각목돌대문토기라는 고고유물을 인지하게 되고, 청동기시대 조기를 설정하게 되었다(安在皓 2000). 이 토기의 계보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나(安在皓 2000; 金材胤 2003; 千羨幸 2005), 이 단계의 시대 명칭 혹은 성격을 규정하는 측면에서 조기 구분은 커다란 의미¹⁾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청동기시대 초기 이전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청동기시대 형성문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신석기 후기의 고고자료, 특히 필자가 각목돌대문토기의 계보로 지적한 한반도 동북지역의 신석기 후기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 고고학계에서 서북지역 신석기 후기 편년안을 세운 주요 고고자료는 뇌문토기이다. 강중광은 뇌문토기를 통해 동북지역의 신석기 후기 유적을 비교하고, 서북지역의 편년안을 동북지역 뇌문토기와 비교하여 양 지역 병행관계를 고찰하였다(강중광 1975).

뇌문토기²⁾는 상당히 특징적이고 특이(特異)하다. 이 토기는 동체부에 계획된 문양대가 돌아가는데,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기하학적인 주제(motive)를 표현하고 있어서 이전 시기나 동시기의 다른 토기들과 차이³⁾가 있다. 문양대는 단사선이나 압인으로 채워진 문양 띠로 이루어지는데, 일정하고 반복적인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신석기시대 토기 문양은 대부분 기하학적이라 할 수 있지만, 뇌문토기는 이러한 문양으로 다시 하나의 기하학적 주제를 표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적인 뇌문토기를 분석하여 기존의 북한자료를 재고하고, 신석기 후기에 좀 더 세밀

1) 부분토기시대라는 용어는 전 시대를 일컫는 즐분토기시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청동기시대에 청동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안재호는 최근 기존의 부분토기시대를 ‘청동기시대’로 정리하였다. 이는 부분토기시대라는 개념 자체에도 점토대토기를 포함하며 이미 철기가 나타난 시기를 포함해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 청동기시대는 도시화가 시작된 것으로 규정(고든 차일드)되었는데, 이러한 개념을 한반도 청동기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청동기뿐만 아니라 석기·옥·토기의 전문화 취락, 거대모역을 갖춘 지식보, 목책시설, 초대형 굴림주거지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안재호 2006). 필자는 이러한 개념에 찬성하는 바이며 이전에서 청동기시대의 초기 구분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2) ‘뇌문토기’란 명칭은 러시아에서는 미안드르(Мeандp)로 불린다. 이는 소아시아의 멘더러스 강(Meanders R.)에서 유래되었다. 이 강은 지형에 의해 S자 모양으로 곡류하는데, 이를 본받아 토기의 명칭을 붙였다(브레이·트럼프 1990).

3)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남연해주를 포함한 동북지역의 신석기시대 토기문화가 크게 압인문에서 침선문으로 발전하다(안드리예바 외 1991; 大貫靜夫 1992).

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그동안 북한자료에 대한 고고편년은 북한의 것이 비판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최근 이를 재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金材胤 2003; 裴眞晟 2003; 강인욱 2005; 千羨幸 2005)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이다. 이에 비해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연해주 자료는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부족한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

동북지역 뇌문토기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를 형식 분류하여 계보를 살피고 시기구분을 하고자 한다. 하나의 문화권으로 생각되는 북한, 러시아 연해주, 중국 길림을 검토대상에 포함한다.

II. 뇌문토기 검토

1. 연구현황과 문제제기

러시아 연해주에서 뇌문토기는 그 자체보다 신석기 후기 문화 개념 규정에 맞추어서 연구되고 있다.

연해주의 신석기 후기는 자이사노프까 1 유적 발굴(안드레예프 1953)을 통해, 중주어골문과 뇌문토기의 존재를 인식하였다. 그 후, 크로노우프까 1 유적 아래층(오플라드니코프 1958)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여 이를 '자이사노프까 문화' 라고 명명하였다(안드레예프 1957).

자이사노프까 문화는 학자에 따라서 몇 단계로 나누어진다. 안드레예프(1960)는 두 시기로 구분하고, 키롭스끼와 자이사노프까 1유적을 선후관계로 파악했다. 오플라드니코프(1970)는 올레니1→자이사노프까 1→크로노우프까 아래층의 3시기로, 브로단스끼(1973, 1975, 1983)는 알레니 유적과 씨니가이 유적을 중심으로 5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는 알레니 B·알레니 II층→알레니 III층→알레니 A→씨니가이 I→씨니가이 B로 편년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토기의 형식 변화에 근거하였다. 이러한 단계 구분은 자이사노프까 문화(신석기후기 전체)를 편년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연구들 자체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각 연구자들이 발굴한 몇 개소의 유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한 시기의 연구가 한정된 유적에서 행해지고, 충분히 동시대의 유적들이 검토되지 못한 상황에서 '문화'의 개념이 곧 시기로 대표되었다. 이는 연구지역이 연해주의 내륙⁴⁾으로 확대되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된다.

4) 부스탕(가르코빅 1968); 바갈류보프카 1(가르코빅 1989); 레티호프카(갈라미예즈 2002, 김재운 외 2006); 씨니가이(브로잔스키 1969); 노보셀리쉴 4(관류예브 1990); 아누치노 14(관류예브 외 2000)



그림 1. 관련 유적 분포도

내륙유적에서 기존의 '자이사노프카 문화'에서 보이지 않는 문화 요소(궁형문(弓形文)⁵⁾)가 나타나면서, 이 문화 개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형성되었다. 새로운 문화요소의 등장으로, 기존 자이사노프카 문화 개념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개념을 수정하여 토기의 특징으로 지역을 나누었다. 자이사노프카 1과 그 주변유적을 자이사노프카 유형, 그 밖의 연해주 동해안 지역에 나타난 유적들을 해안가유형, 한카호 부근 내륙 유적들을 내륙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세 그룹을 통틀어 자이사노프카 문화라는 용어 대신 '자이사노프카 공동체(society)'로 대체하였다(끌류에프·안쉬나 2005).

즉, 종래의 자이사노프카 문화가 시기를 대변하는 개념이었다면, 새로운 개념은 두만강 주변 지역의 핫산지역을 대변하는 지역적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개념이 시기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점은 동시대의 유물복합체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경우 오류를 범하게 된다. 조사와 연구가 축적되면서 2~3개소의 유적으로 형성된 문화 개념의 틀이 흔들리게 된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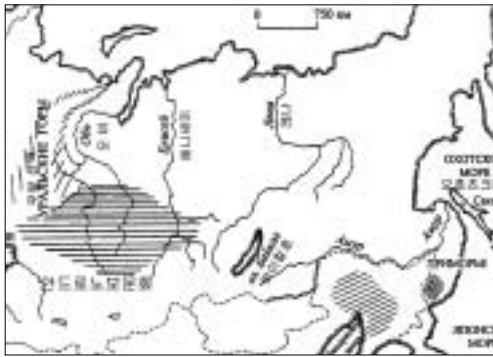
북한에서도 신석기 후기 편년을 세우는 중심자료는 뇌문토기이다. 이 토기로 동북지역과 서북 지역의 전체적인 상대연대를 세우게 되었다(강중광 1975).

5) 궁형문은 다치구로 반원이나 타원을 시문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자이사노프카 문화를 대표하는 종주어골문이 직선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질적인 요소이다. 자세한 도면은 필자의 전고(김재윤 외 2006)를 참고 바란다.

6) 필자는 '문화'라는 개념을 곧바로 시기와 병행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시기'로 구분하여서, 그 전체 아래에서 몇 개의 유물복합체 혹은 유형(類型)의 개념을 세워서 연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뇌문토기는 처음에 기본형과 변형의 두 형식(도유호 1960: 85)으로 분류되었는데, 다시 뇌문의 형태에 따라 5가지로 나누었다. 서북지역은 당산형과 쌍학형, 청등말래형 뇌문토기로 나누어진다. 당산형과 쌍학형 뇌문토기는 기형으로 선후관계가 파악되었고, 쌍학형과 청등말래형 뇌문토기는 청등말래에서 공반된 채색토기의 존재로 청등말래형 뇌문토기가 늦은 것으로 보았다. 즉, 당산 쌍학리 청등말래(신암리)라는 기본적인 신석기 후기-말기의 서북지역 편년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동북지역 농포형 뇌문토기와 서포항형 뇌문토기에서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욱 완성도가 높은 무늬이기 때문에 서포항형 뇌문토기가 농포형의 것보다 앞선 것으로 파악하였다(강중광 1975). 중국, 러시아 연해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뇌문토기라는 요소를 통해 신석기 시대 후기 동·서북지역의 병행관계를 살펴본 견해는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속성분석이나 형식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 지역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동북지역 뇌문토기 계보 연구는 북한에서는 서북 지방과의 관련성만 언급되었고, 러시아의 것이 대부분이다. 자이사노프까 1 유적(안드리에바 1957)의 발굴 후부터 제기되어 온 시베리아의 안드로노보 설⁷⁾이 주를 이룬다(그레벤쉬코프 1990; 슈쉬호프스카야 2004). 이는 안드로노보 문화가 확산 과정에서 연해주의 자이사노프까 문화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설이다(슈쉬호프스카야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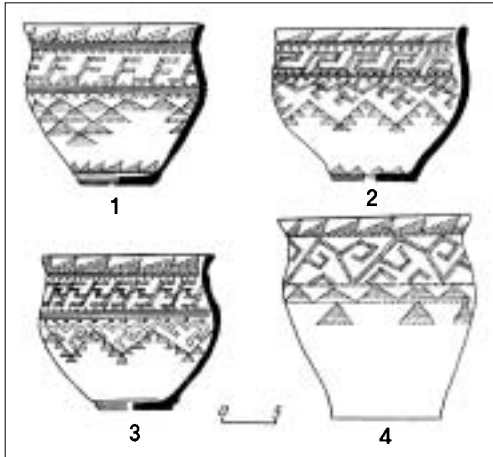


그림 2 안드로노보 뇌문토기
(1: 슬레노오르니야, 2: 수하에 오제로, 3: 벨리스탄 1, 4: 안드로노보)

안드로노보 문화의 뇌문토기에는 문양이 하나의 기하학적인 주제가 반복 시문되었다는 점에서 북한과 러시아 연해주, 중국 길림의 뇌문토기와 공통적이다. 그러나 안드로노보 문화의 뇌문토기는 다치구를 이용하여 구연부에는 삼각형모티브가, 그 아래 가로질러진 문양대의 사이에는, F자 모티브가 연속 시문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삼각형 문양대를 복합 시문하였다(그림 2).

이렇게 문양을 복합한다는 점은 서북지역의 뇌문토기와 유사하지만, 문양모티브가 전혀 다르고 시문 방법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서북지역

7) 안드로노보 문화가 위치한 곳은 서쪽 우랄 산맥에서 동쪽 예니세이 강까지, 북쪽 시베리아 타이가 지역에서 남쪽 카사흐스탄 스텝지역까지 넓은 지역에 퍼진 문화이다. 문화연대는 기원전 18~17세기(막시넨코프 1978)와 13세기~12세기가 있다(코사레프 1981).

토기에서 보이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돌아 나오는 시문방법은 동북지역에서는 보이지만, 안드로노보 문화의 토기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서북지역이나 동북지역에서는 문양에 단사선으로 채워 넣는 개념이 강하지만, 안드로노보 문화의 토기에는 이러한 시문수법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안드로노보 문화와 자이사노프까 문화가 서로 3,000km 떨어진 곳에 존재(막시멘코프 1978)한다는 점과 시기적으로도 전자가 기원전 18세기, 17세기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이사노프까 문화의 절대연대는 연해주 서부지역의 노보셀리셰 4 자료를 참고하면 3840 ± 79 B.P.과 3870 ± 40 B.P.(글류예프 2004)이다. 양 문화가 3,00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연대 상에서 거의 시간 차이가 없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은 인접국가의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뇌문토기의 안드로노보 문화 계보설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속성검토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2. 자료 검토⁸⁾

1) 동북지역

뇌문토기는 문양의 형태나 수법으로 볼 때, 이 지역 토기문화 발달과정에서 매우 이질적인 요소로, 갑자기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하학적 모티브가 문양대를 이룬 것이다. 문양대를 계획한다는 점에서 서포항 3기 타래문토기도 같은 개념에 속한다.

그러나 타래무늬는 곡선적인 것으로 직선적인 뇌문토기와 차이가 있다. 또한 타래문은 바탕에 새김을 하여 문양을 도드라지게 표현하였고, 뇌문은 뇌문 자체를 장식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두 문양을 같은 범주로 보기 힘들다. 필자는 동북지역의 타래무늬와 뇌문토기의 계보가 다른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본고에서 타래무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뇌문토기가 확인되는 유적으로는 동북지방 한반도 내의 농포리, 송평동, 호곡유적, 서포항(3기) 4기, 연해주의 자이사노프까 1, 레티호프까, 짜피고우, 아누치노 14, 무스탕, 중국의 금곡유적, 흥성유적 등이 있다.

농포리유적에서는 유물포함층(橫山將三郎 1934)과 패층이 조사되었는데, 여기에서 출토되는 뇌문토기는 능형 뇌문과 정사각형 뇌문이며, 문양의 가운데에서부터 바깥으로 돌아나오는 형태이다.

능형 뇌문<그림 8-1~4>과 정사각형 뇌문<그림 8-8>은 보는 각도에 따라 같은 것으로 볼 수

8) 뇌문토기에 대해서는 3장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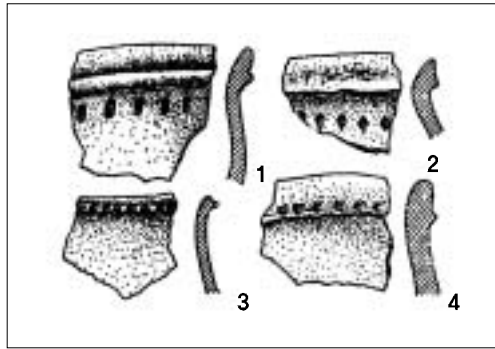


그림 3. 송평동 2기

확인되지 않았으나 뇌문토기<그림 8-5~7>와 구연부에 돌대문이 돌아가는 토기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각목돌대문 토기는 서포항 5기와 비교 할 수 있다. 두 토기 사이에는 시기차이가 나타나는데, 뇌문토기를 송평동 1기, 각목돌대문토기를 송평동 2기(황기덕 1962)<그림 3>로 나누고자 한다.

검은개봉유적(황기덕 1962)은 일부가 지표조사되었는데, 뇌문토기<그림 8-9>와 타래무늬 토기가 보고되었다.

호곡유적은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철기시대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황기덕 1974). 종래 호곡 1기는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됨에 따라 동북지역 최고(最古)의 청동기시대로 편년되었다(황기덕 1975). 그러나 최근 남한학계에서는 호곡 1기보다 서포항 5기를 가장 빠른 유적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金材胤 2003; 배진성 2003; 千羨幸 2005).

호곡 1기는 구연부에 돌류가 돌아가며 동체부에 다치구로 시문된 호와 두형(豆形) 적색 마연토기, 무문의 공열문토기 혹은 돌류문토기 등의 유물로 구성되어 있다. 어골문, 뇌문, 다치구에 의한 문양 등 신석기 후기 요소<그림 4>와 다양한 기형의 무문토기가 함께 1기로 편년되었다. 뇌문토기는 호곡 1기의 12(ㄱ) 주거지에서 1점 확인되었는데, 잔존상태로 보아 'ㄷ' 형 뇌문에 내부를 압인으로 채운 것이다<그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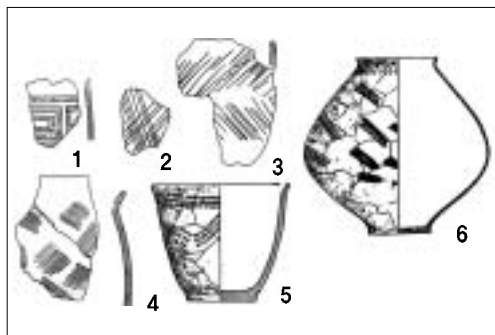


그림 4. 호곡1기 신석기적 요소
(1: 2: 12(ㄱ) 住, 3: 9호 住, 4: 2호 住 5 · 6: 25호 住)

있으나 문양의 각도에 따라 시문 방법이 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능형 뇌문은 능형과 능형 사이 모서리 연결 부분에 삼각형 뇌문이 복합될 수 있지만, 정사각형 뇌문은 그러하지 못하다. 분포 상에서도 정사각형 뇌문은 서북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이들을 다른 뇌문 문양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송평동 유적에는 유물포함층과 패층이 점점이 분포한다(藤田亮策氏 1930). 자세한 층위 관계는

서포항 4기로 보고된 뇌문토기는 다른 유적의 출토품과 기형에서 차이가 난다. 다른 유적의 것은 구연부가 외반된 동북지역 옹형인데 비해, 서포항 뇌문토기는 소형의 통형이다<그림 8-26>. 또한, 같은 유적 출토의 다른 뇌문토기는 위, 아래로 평행하는 문양띠로 문양대를 만들고, 문양띠는 침선으로 채웠다. 침선은 두 가지 방향으로 시문되었다<그림 8-25>.

연해주의 자이사노프까 1 유적은 해안을 끼고

있는 높지 않은 언덕에 위치하는데, 주거지로 추정되는 수혈이 반파된 상태로 발견되었다(안드레 예프 1953). 이 유적에서 여러 문양의 토기와 함께 뇌문토기가 확인되었다. 뇌문은 3~5치구로 압인<그림 8-11~14>하거나 단치구로 침선<그림 8-15~17, 19>을 시문하였다.

레티호프까 유적은 연해주 내륙의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그림 1>. 신석기 최말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거지와 저장수혈 등이 발굴 조사되었다(칼라미에츠 외 2002; 김재윤 외 2006). 이 유적에는 종주어골문토기, 종주어골문이 시문된 즐문돌대문토기, 뇌문토기<그림 8-20, 22~24> 등이 확인되었다.

씨니가이 유적은 연해주 내륙에 위치하는데<그림 1>, 신석기 말기부터 철기시대, 중세시대까지 형성된 유적이다(브로단스끼 1987). 뇌문토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의도적으로 문양띠를 따라 지운 흔적이 있다<그림 8-29·30>.

끄로우노프까 1유적(아래층)은 연해주 내륙에 위치하고, 끄로우노프까 강의 하안에 인접해 있다<그림 1>. 신석기 후기 자이사노프까 문화부터, 안콥스키 문화, 끄로노우프까 문화까지 형성된 유적이다(오펜라드니코프 1958). 유적의 북쪽을 1984년과 2002년에 발굴하였는데, 신석기 후기 주거지가 확인되었다(보스뜨레쥘프 외 2002)⁹⁾. 뇌문토기는 1958년 신석기 후기층에서 확인되었다<그림 8-27·28>.

아누치노 14유적은 연해주 내륙의 낮은 구릉에 형성되었다. 신석기 후기부터 청동기시대까지 확인된 유적으로 주거지 2기가 발굴 조사되었다(플류예프 외 2002). 신석기 후기 층에서 출토된 뇌문토기에는 아주 간략하게 시문되어 있다<그림 8-31>.

중국 용정시 금곡유적은 신석기 후기의 취락유적으로(于匯歷 1991), 뇌문토기와 종주어골문 토기가 확인되었다. 뇌문은 토기의 동체부에 시문되었는데, 침선문양이다<그림 8-18>.

중국 연길의 흥성유적은 신석기 후기부터 청동기시대까지에 이르는 대규모 취락유적이다. 전체적으로 5기로 나누어지고, 3기부터 청동기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1). 신석기 단계에서는 뇌문토기, 종주어골문토기, 타래문토기 등이 확인된다. 뇌문토기는 대체로 아주 작은 편이기 때문에, 기형이나 뇌문의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문양띠 내부를 단사선으로 채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서북지역

한반도의 압록강 지역과 중국 요동반도는 유물을 통해 보았을 때, 관련 깊은 곳이다. 양 지역의

9) 1984년과 2002년 발굴에서 뇌문토기는 확인되지 않고, 종주어골문토기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종전의 침선계의 종주어골문과는 다른 수법의 종주어골문이다. 지역 학계에서는 시문도구에 새끼줄을 감아서 만든 도구로 시문한 것으로 '승문(繩文)' 기법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침선계의 것과 시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편년 비교연구는 동북아시아에서 요동반도와 한반도의 병행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서북지역에서 뇌문토기가 나타나는 유적은 북한의 당산, 쌍학리, 용연리, 도봉리, 청등말래유적, 신암리 제 3지점 1층, 토성리, 룡송리유적, 신도 조금소와 남경유적이 있다. 요동반도는 뇌문토기 출토 양상으로 보아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⁰⁾. 요동반도 내 압록강 유역의 석불산(石佛山) 유적(許玉林 1990)과 요남지방의 곽가촌(郭家村)유적(許玉林 1984)에서 이 토기가 출토되었다¹¹⁾.

석불산유적에서는 주거지와 수혈이 확인되었는데, 절대연대를 근거로 하여 소주산 상층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압록강 하류에 인접해 있으며 삼족기의 부재나, 황으로 붙은 파수 등은 신암리 1유적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 유적은 요동반도 문화권보다는 압록강 유역의 문화권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뇌문토기는 호형 경부에 뇌문이 시문된<그림 8-11~13>것과 손잡이가 달린 동체부 편에 뇌문이 시문되었는데, 돌대가 부착된 것이 확인되었다.

곽가촌유적은 상층과 하층으로 나누어진다. 상층에서 뇌문토기로 보이는 토기편이 발견되었는데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문양띠가 평행하다가 서로 꼬여지고 그 사이를 침선으로 채운 수법과 당산 유적에서 꼬임을 표현한 부분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백흥기 1994).

당산유적은 패층유적이며, 유물을 기준으로 하층과 상층으로 나누어진다. 하층에서는 이중구 연문토기, 동체에 돌대가 부착된 토기, 뇌문토기 등이 확인되었고, 상층에서는 구연부에 돌대가 부착된 토기나 이중구연토기, 호 등이 확인되었다(차달만 1992).

당산의 뇌문토기<그림 7-1·2>의 기형은 발형이며 저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뇌문은 문양대를 구획하고 문양띠 내부를 단사선으로 채워 넣는 방법으로, 상하의 문양띠가 중간에서 교차되어 전체적으로 꼬여진 느낌이다. 또한 뇌문의 아래에 돌대가 부착된 것이 특징이다. 당산유적 하층 뇌문 토기는 요동반도 곽가촌 IV층(하층) 유적의 토기와 관계된 것으로, 곽가촌의 절대연대(5375±135 B.P.)를 기준으로 하여 당산유적 연대를 기원전 3,000년 전후로 파악하고 있다(백흥기 1994).

남경유적은 취락유적으로, 신석기시대 층이 1기와 2기로 나누어진다. 남경 1기는 서해안 금탄리 2기(조선전사 1981)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1기의 37호 주거지와 2기의 31호 주거지에서 뇌문토기 <그림 7-4>가 출토되었다. 31호 주거지 출토품은 구체적인 그림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37호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용간·석광준 1984). 이 주거지에서 뇌문토기와 함께 곽가촌 유적 상층 출토<그림 7-5>와 같은 덧무늬토기<그림 7-3>가 확인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남경유

10) 뿐만 아니라 삼족기의 출토 양상에서도 지역구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요동반도에서는 서북지역에서만 삼족기가 출현하는데 이는 산둥반도와 교류로 보고 있다(大貫靜夫 1998). 요동반도의 동부지역인 압록강유역에서는 삼족기가 출토되지 않는데, 이것이 두 지역의 문화적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점에 필자도 동감하는 바이다(金材胤 2003).

11) 물론 중국의 편모문화, 조보구 문화, 사해 등에서도 이러한 문양은 보인다. 그러나 본 글을 통해서 필자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 동북지역의 뇌문토기 형성과정이며, 요동반도의 뇌문토기 형성에 관해서는 많은 선행작업과 함께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적과 광가촌 유적 상층 병행관계가 설정되었다(許玉林 1994)¹²⁾.

남경유적의 뇌문토기는 상당히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다. 호형 토기이며 경부와 저부를 제외한 동체부 전체에 시문되어 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획되는데 위단과 아래단은 문양띠를 단사선으로 채워 문양을 나타내었다. 가운데 단은 곡선적인 문양으로, 구획한 후 문양의 바탕을 단사선으로 채워서 위·아랫단과 차이가 나게 시문하였다. 아랫단의 뇌문으로 보아 당산 뇌문토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쌍학리유적은 층위상황이 확실히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보고서나 논문을 통해서 대략의 토기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강중광 1975). 쌍학리 뇌문토기는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그림 7-6~10). 완형인 호형토기의 경부와 동체부 전체에 문양이 복잡하게 시문되어 있는 형태이다. 경부와 동체부의 문양을 단사선으로 채우는 방법은 같으나, 뇌문의 문양이 다르다(그림 7-6). 또한, 문양띠를 침선으로 채우지는 않고 두 줄의 침선으로만 가운데에서부터 돌려 나오는 것도 확인되었다(그림 7-8·9). 이와 유사한 뇌문토기들이 도봉리유적에서도 출토된다고 보고되어 있다(강중광 1975).

신암리유적은 구릉에 위치하며, 서, 남, 북쪽으로 나뉘어져 서쪽은 청등말래, 남쪽은 공동묘지, 북쪽은 모래산으로 복잡하게 불려진다. 1964년에는 모래산 일부와 청등말래를 발굴하고, 65년에는 모래산의 나머지와 청등말래의 서남쪽 축사 앞을 발굴하여 총 세 곳이 조사되었다. 1964년에 조사된 청등말래가 제 1지점으로 불리고 있다(리순진 1965; 김용간·리순진 1966).

신암리유적 1기의 뇌문토기 중 전체적인 양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로 호형토기인데 경부와 동체부에 시문된 것, 동체부에만 시문된 것 등이다(그림 7-14~15, 20~23). 뇌문은 다른 문양이 복합되는 경우도 있는데 경부와 동체부의 경계에 돌대가 부착되는 것(그림 7-20~22), 원판형의 점토를 덧붙인 것 등이다(그림 7-22·23).

경부와 동체부에 시문된 토기는 잔존상태를 볼 때 4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삼각형, 직사각형 등이 교차 시문되었다(그림 7-20). 시문방법도 침선으로 문양을 그려 표현하는 방법이며, 문양띠를 단사선으로 채운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암리의 호형 뇌문토기와 유사한 뇌문토기는 용연리 출토품이다(그림 7-24). 호형토기이며 경부와 동체부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 잔존상태를 볼 때 동체부 상단은 정사각형 뇌문이다. 다른 정사각형 뇌문과 달리 ‘ㄷ’ 형을 상하로 교차하여 시문하였다. 용연리 출토품 역시 문양띠만 그리고, 그 사이를 단사선으로 채우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도면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세죽리유적과 신도 조금소유적에도 뇌문토기의 출토가 보고되었다(강중광 1975). 이에 따르면 세죽리유적의 것은 주거지 출토품이 아닌 문화층의 것으로 당산유형과는 다른, 청등말래형 뇌문토기와 같은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신도 조금소유적의 것은 쌍학리유적의 것과 비슷한 능형뇌문으로, 두 줄의 평행선 안에 단사선을 채운 무늬로 보고되어 있다.

12) 許玉林, 1994, 遼東半島和朝鮮半島新石器文化分期年代表를 참고하였다.

토성리유적은 자강도에 위치하며 지역구분에서 서북지역과 동북지역의 중간에 있다. 신석기시대 부터 철기시대까지의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발굴보고는 주로 신석기시대 위주이다(정찬영 1983). 농형 뇌문토기가 한 점 보고되었다(그림 6-3).

Ⅲ. 동북지역 뇌문토기의 형성과정

1. 속성분석

표 1. 뇌문토기 속성표

유적	속 성		뇌 문 문 양						시 문 방 법			시 문 범 위			기 형		비 양			
			꼬 임 (A)	이 형 (B)	삼 각 형 (C)	요 철 (D)	□ (a)	□ (b)	L (c)	외부 : 침선(1)		침 선 지 음 침 (II)	동 체 부 1/2 이 상 (i)	동 체 부 1/2 (ii)	동 체 부 1/2 이 하 (iii)	발 형 A'		호 형 B'	비 양 비 어 (a)	
										내부 : 중진(1)										비 중 진 (2)
										압 인 (1)	단사선									
											방향									
서 북 시 방	당산	도8-1,2	○											○						
	남경	도8-4	○	○											○					
	석불산	도8-11~13		○											○					
	도봉리	도8-25,26			○	○					○				○					
	쌍학리	도8-6~10 16~19		○	○	○					○				○					
	신암리 1기	도8-14,15 20~23		○	○	○					○				○					
동 북 시 방	용연리	도8-24			○	○									○					
	토성리	도7-3			○															
	농포	도9-1~4, 8		○			○					○					○			
	송평동 1기	도9-5, 6, 7			○			○	○				○				○			
	검은개봉	도9-9					○					?					○			
	호곡 12(가) 住	도9-10						○	○				?							
	서포항 4기	도9-25,26						○	○				○				○			
	자이산호프까 1	도9-11~17, 19						○	○	○			○	○			?			
	레터호프까 99	도9-21~24							○	○				○			?			
	레터호프까 04	도9-20							○	○	○			○	○		?			
방	씨니가이하층	도9-29,30							○	○					○		?			
	차피고우	도9-27, 28							○	○					○		?			
	아누치노 14	도9-31							○	○			○				?			
	금곡	도9-18							○	○							○			
	홍성							?	?	?	○									

토기의 특성상 가장 뚜렷한 속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문양이다. 또한 뇌문문양에 따라 시문 기법에서도 차이점이 관찰된다. 기형도 동북지역과 서북지역 간의 차이가 있고, 각 문양에 따라서 변형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북지역에서는 꼬임(A), 능형(B), 삼각형(C), 요철형(D) 뇌문이 보이는데, 꼬임이나 요철형 뇌문은 동북지역에서 보이지 않는다. 한편, 동북지역에서는 서북지역에 보이는 능형, 삼각형뿐만 아니라, ㄱ(a), ㄷ(b), ㄴ(c)모티브, 침선이 지워지는 것도 관찰된다.

시문기법 중, 문양띠를 침선(I)으로 그리는 것은 서북지역에서, 그 내부를 단사선으로 충전(I1)하는 기법은 동북지역과 서북지역에서 공통으로 확인된다. 내부를 압인구로 찍어서 시문하는 방법(I1①)은 동북지역에서만 보이며, 문양의 모티브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침선으로 그리고 내부를 충전하지 않는 기법(I2)은 서북지역에서만 관찰된다.

기형은 서북지역과 동북지역이 확연하게 구별된다. 당산유적의 출토품은 발형이고, 그 외에 서북지역에서 기형을 알 수 있는 것들은 호형이다. 이러한 차이는 당산유적의 것이 서북지역 뇌문토기 중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되었던 중요한 요인이다(강중광 1975). 동북지역의 것은 기본적인 신석기 시대의 평저 발형토기에서, 구연부가 약간 외반한 옹형토기에 뇌문이 시문된 형태이다. 이를 동북지역형 옹형토기로 부르려고 한다¹³⁾. 서포항 뇌문토기는 기형을 알 수 있는 것이 통형이다.

동북지역의 뇌문토기에서는 좀 더 세밀한 속성이 관찰된다. 뇌문형태에 따라서 문양띠의 수(표 2),

표 2. 동북지역 뇌문문양에 따른 문양띠 수 변화

	(B)	(C)	(a)	(b)	(c)
9	○		△	△	
7	○		△	△	
6	○			△	
5	*	*		△	△
4		○		△	△
3		○			

표 3. 동북지역 뇌문문양과 문양시문위치

	B	C	a	b	c
동체부 1/2 이상(i)	○		○	○	
동체부 1/2 지점(ii)	○	○		○	
동체부 1/2 이하(iii)		○			○

문양의 시문위치(표 3)가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양형태에 따라서 문양의 단위도 변화한다. 능형 뇌문(B)과 ‘ㄱ’ 자형 뇌문(a)은 계열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능형 뇌문은 삼각형 뇌문으로 변화하고, ‘ㄱ’ · ‘ㄷ’ 뇌문은 ‘ㄴ’ 뇌문으로 변화한다. 이 두 계열의 변화에 관해서는 이미 大貫靜夫(1992)가 언급한 바 있다.

능형모티브와 ‘ㄱ’ 뇌문은 달리 생각하면 방향만 다르지 같은 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2>와 같이 형식학적으로는 다른 발전 방향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뇌문의 형태와 함께 위치도 속성으로 추출될 수 있다. 동체부의 1/2을 기준(ii)으로 1/2 지점 이상(i) 시문되는 것, 1/2 이하(iii)로 시문되는 것이 관찰

13) 본고에서는 더 이상 동북지역의 뇌문토기 기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하지 않겠다. 동북지역의 기형은 뇌문토기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다른 문양토기와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표 4. 뇌문문양과 시문방법 변화

			B	C	a	b	c
침 선 (1)	총	압인(①)	○	○	○	○	
	단 사 선	한방향(②)	○	○	○	○	○
		두방향(③)				○	○
	침선 지워짐(2)						○

된다. 이것을 속성조합하면 문양의 종류에 따라서 시문범위가 각기 동체부의 1/2 이상이다가 동체부 상단으로 줄어든다<표 3>.

동북지역 신석기시대에는 문양이 전체적으로 압인문에서 침선문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뇌문토기에서도 관찰되는데, 능형과 삼각형뇌문에서는 압인과 단사선문으로 문양띠가 채워진다. 이

외의 뇌문에서는 압인 한방향 단사선 양방향으로 교차된 단사선문으로 채워진다<표 4>. 이러한 문양띠 내부를 압인으로 채우는 기법은 서북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동북지역에 정착된 뇌문토기가 재지의 압인 기법을 뇌문토기에 수용한 것으로, 재지화되어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의 속성 분석을 토대로 동북지역 뇌문토기는 문양 시문수법, 문양형태 등으로 보아 한반도 서북지역의 영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서북지역 능형뇌문(B)이 동북지역에 유입되어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2. 선행 작업: 서북지역 뇌문토기의 편년

속성 분석을 통해, 동북지역의 뇌문토기는 서북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서북지역의 능형모티프가 그대로 유입되면서, 동북지역 뇌문토기가 여러 발전단계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확산과정을 고찰하기 전에 서북지역 뇌문토기의 편년 작업을 실시하여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 장의 속성분석을 토대로 편년하였을 때, 서북지역의 뇌문토기는 3기로 나누어진다<표 514>, 그림 7>.

가장 이른 단계의 것은 당산유적의 발형 뇌문토기<그림 7-1·2>로 보인다. 이 뇌문토기가 괄가촌 토기와 유사한 점은 이미 지적되었으며(백흥기 1994), 기형이나 구체적인 특성은 알 수 없으나 뇌문문양과 시문 수법 등에서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북지역 뇌문토기 2기는 남경<그림 7-4>, 석불산<그림 7-11~13>, 쌍학리 1기<그림 7-6~10>, 신암리 1기-뇌문1기<그림 7-14·15>의 것이다. 2기의 뇌문은 대체로 호형토기에 시문되는데, 문양 띠는 능형이며 그 내부는 대부분 단사선문으로 채워진다.

남경유적의 유물은 다른 압록강 유역의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지적한 바와 같이 뇌문토기 아랫단은 당산 유적의 것과 유사하다. 남경유적 31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덧띠무늬 호형토기<그림 7-3>는

14) %는 전체 서북지역 출토 뇌문토기에 대한 해당유물의 빈도를 나타낸다. 동북지역 뇌문토기의 변천도 마찬가지이다.

표 5. 서북지역 뇌문토기의 변천
(○-9.96% ◎-6.45% ◯-3.32%)

단계	서북뇌문토기1	서북뇌문토기2	서북뇌문토기3
당산·곽가촌	◎		
남경		○	
석불산		◎ ◎	
쌍학리 1기 (조금소?)		◎ ○	
신암리 1-뇌문토기1기			◎
쌍학리 2기			○
신암리 1-뇌문토기2기			○ ○
도봉리			○ ○
용연리			○

소주산 상층<그림 7-5>의 것과 거의 동일한 토기로, 요동반도와 남경 유적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불산, 쌍학리 1기, 신암리 1기-뇌문1기는 경부부터 뇌문이 시문된다. 석불산의 것은 능형뇌문이 가운데에서부터 밖으로 돌아 나오는 문양으로, 이와 유사한 것은 쌍학리나 신암리에서 확인된다.

쌍학리유적의 뇌문토기는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으로, 유적을 2기로 나눌 수 있다. 1점 외에는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기형이나 시문위치 등은 알 수 없으나, 석불산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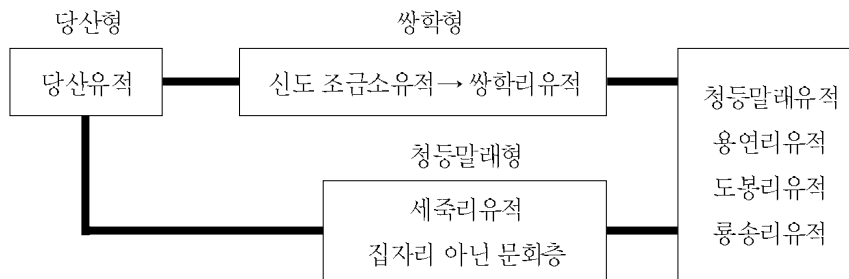
품과 같이 능형과 삼각형 뇌문으로 내부가 단사선으로 채워진 것은 쌍학리 1기에 해당하고, 요철형 뇌문토기는 쌍학리 2기로 뇌문토기 3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암리 1기를 뇌문토기 계열과 점열문, 침선문 계열로 나누고, 후자를 신암리 2기의 중심유물로 보아 고기(古期)와 신기(新期)로 나누기도 한다(千羨幸 2005). 지적된 신암리 1기 고기(古期)의 뇌문토기 사이에도 시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능형과 삼각형 뇌문인데, 내부가 단사선으로 채워진 것들이다. 이러한 유물을 신암리 1기-뇌문1기로, 필자가 분류한 서북지역 뇌문토기 2기로 보고자 한다.

서북지역 뇌문토기 3기는 쌍학리 2기<그림 7-16~19>, 신암리 1기-뇌문2기<그림 7-20~23>, 도봉리<그림 7-25~26>, 용연리<그림 7-24>의 유물이다. 문양띠 내부를 채우지 않는 것으로 아주 복잡하며, 서로 다른 뇌문이 복합되기도 한다. 신암리 1-뇌문2기의 것은 경부와 동체부에 돌대문을 부착하고 동체에 수직으로 파수를 붙이는 등 이전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6>은 북한의 뇌문토기에 따른 유적 편년이다.

표 6. 북한의 서북지역 뇌문토기 변천 (강중광 1975)



신도 조금소유적, 세죽리유적, 룡송리의 뇌문토기는 도면으로 보고된 바가 없어 분석에 아쉬움이 있다. 단지 조금소유적의 것은 쌍학리 뇌문토기와 비슷하다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쌍학리와 같은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표 6〉에서는 쌍학리 유적의 유물이 청동말래 신암리유적보다 이른 시기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쌍학리 1기 뇌문토기와 신암리1기-뇌문1기의 토기는 뇌문형태, 단사선으로 채우는 기법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쌍학리 1기와 신암리 1기-뇌문1기는 어느 정도 병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쌍학리 2기의 요철형 뇌문은 신암리 1기-뇌문2기의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용연리의 것은 신암리 1-뇌문2기보다 더욱 단순화되며, 뇌문문양이 복합되는 점, 동체부에만 시문되는 점 등을 보아 가장 늦은 형태로 보인다.

3. 동북지역 뇌문토기의 편년과 확산

1) 뇌문토기 계보와 편년

서북지역 뇌문토기 2기는 석불산이나 쌍학리 1기로 대표되는데 능형뇌문에 문양띠를 단사선으로 채운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문양 형태와 시문수법 등은 동북지역에서도 확인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듯하다.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에서 영향을 받은 동북지역의 뇌문토기는 각각 2계열로 나누어져 소멸·발전한 것으로 보인다(표 7).

침선으로 문양띠를 그리고, 그 내부를 단사선으로 채운 1계열 1식(그림 5-1)이, 1계열 2식의 삼각형뇌문(그림 5-2)과 동북지역 뇌문토기 2계열 1식 ‘ㄱ’형 뇌문(그림 5-3)으로 나누어 발전한다. 계열이 변화하는 것은 농포유적에서 확인되는데, 이에 따라 농포유적을 2기로 구분하였다. 농포1계열 1식을 농포 뇌문1기, 2계열 1식을 농포 뇌문2기로 보고자 한다.

농포유적의 능형뇌문토기(그림 7-1~4)는 현재 자료로서는 동북지역 최고식(最古式)이다¹⁵⁾.

따라서 서북 뇌문토기 2기에 해당하는 압록강 서유역의 석불산유적 뇌문토기나 쌍학리유적의 뇌문토기가 동북지역 농포유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평동유적 출토 능형뇌문은 삼각형 뇌문(그림 5-2)과 ‘ㄱ’자형 뇌문으로 발전하여 전자는 소멸되고(1계열) 후자는 다른 발전 형태를 보인다(2계열).

15) 이러한 자료의 부족한 점은 두만강의 러시아 국경과 접한 지역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상황을 예견해 볼 수도 있다.

표 7. 동북지역 뇌문토기 변천
○ -8.9%, ◎-4.5% ○-2.2%

	1계열		2계열		
	1식	2식	1식	2식	3식
농포 뇌문1기	○				
송평동 1기		○			
농포 뇌문2기			○		
검은개봉			○		
호곡1기 12(-)住			○		
자이사노프까1			○	◎	
복단강				○	
레티호프까 04				○	◎
레티호프까 99					◎
서포항 4기					◎
시니가이 하층					◎
끄로우노프까 1 아래층					○
아누치노14					○

1계열 삼각형 뇌문은 동체부 중앙까지 시문되며, 문양띠의 내부가 압인되었다. 2계열로 발전된 ‘ㄱ’ 형 뇌문토기(1식) <그림 5-3>의 문양띠는 침선으로, 그 내부 사이는 압인이나 단사선으로 채워진다. 압인 뇌문토기는 서북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문양기법은 동북지역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법은 2계열 2식이 되면 소멸된다.

뇌문문양은 ‘ㄷ’ 형 뇌문<그림 5-4>으로 변화되고, 문양띠를 침선으로 채우게 된다. 시문범위도 전 단계에는 동체부 면적의 1/2 이하로 새겨지던 것이 1/2 정도로 확대된다. 전 단계에도 확인되는 자이사노프까 1유적의 출토품에서는 2식까지가 해당된다. 새롭게 레티호프까 04 출토품이 등장하는데, 저부에 굽이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8-20>.

3식이 되면, 문양은 더욱 간소화되어 ‘ㄴ’ 형 뇌문으로<그림 5-5>, 문양띠 내부를 한 방향 단사선으로 충전하던 것이 양방향의 단사선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아누치노 14의 출토품은 문양띠 자체를 간소화하여 침선의 문양띠 대신 ‘ㄴ’ 형으로, 문양띠를 지운 흔적<그림 5-6>이 남아 있다. 또한 내부를 단사선으로 대충 선을 그어 표현하게 되며 문양대도 동체부의 1/2 이하로 축소된다. 기형도 종래의 구연부가 외반된 기형에서 서포항 4기의 예와 같이 통형으로 다양해진다. 단사선으로 침선한 후 내부를 두 방향으로 시문한 것 등 늦은 시기의 요소가 확인되기 때문에 서포항 4기의 뇌문토기는 가장 늦은 단계로 볼 수 있다.

2) 동북지역 뇌문토기 확산

동북지역 뇌문토기는 지역적으로도 다른 분포양상을 보인다. <표 8>과 같이 1계열과 2계열의 1식은 주로 두만강 유역에 분포하나, 2계열의 2식, 3식은 주로 남연해주의 내륙에 분포한다. 이에 따라 종래의 두만강 신석기 후기 문화가 두만강 지역을 통해 남연해주와 중국 연변일대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¹⁶⁾.

16) 신석기 후기 문화가 자체 문화발전이 아닌 다른 지역의 영향이라는 것은 생계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신석기 후기가 되면서 기후 변화로 농경이 유발되었다는 것이다(보스프레프 2005). 그러나 이를 지적한 학자가 고고학 자료로 제시한 것은 앞서 잠깐 언급한 승분계의 중주어골문이다. 이 지역에서 신석기 후기 문화가 전파되었다는 개념은 동일하나, 고고 자료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중주어골문과 뇌문토기와의 관계가 고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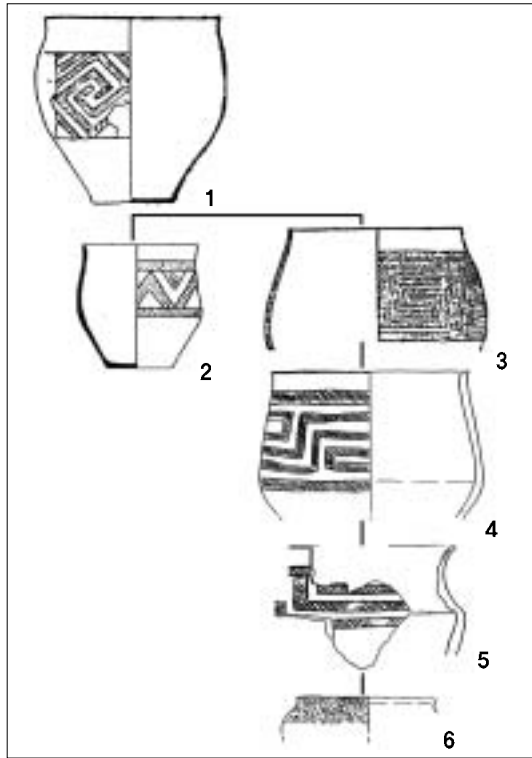


그림 5. 동북뇌문토기 형식변화

표 8. 동북지역 뇌문토기 출토 유적

		유 적	
		1 계열	2 계열
1기	두	농포 뇌문1	
2기	만	송평동 1기 ?	농포 뇌문 2 검은개봉 호곡 1기12(ㄱ) 자이사노프까1-1기
3기	강연변-남		자이사노프까 1-2기 금곡 레티호프까 04
4기	유연해주		서포항 4기 레티호프까 99 씨나카이 하층 끄로우노프까 1 아래층 아누치노 14

17) 자이사노프까 1유적은 문화층을 발굴한 것이다. 자이사노프까 1유적에서도 압인문 단계가 존재(안드레예프 1953)하고 필자가 실경한 바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자이사노프까 1유적의 시기가 특정 시기에만 존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몇 단계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분은 뇌문토기에 대해 자이사노프까 1 유적을 두 단계로 나누고자 한다.

동북지역 뇌문토기는 4기로 나누어지는데, 1기는 서북지역 뇌문토기를 받아들이는 단계로, 1계열 1식에 해당된다(그림 8-1~4). 서북지역 2기의 것과 뇌문의 형태, 시문기법도 비슷하다. 이 시기는 서북지역 2기와 병행하거나 약간 늦은 것으로 보이며 농포 유적이 해당된다.

동북지역 뇌문토기 2기는 뇌문이 1계열(그림 8-5~7)과 2계열 1식(그림 8-8~14)으로 분화된다. 재지의 문양 기법을 받아들여 압인으로 문양띠가 채워지기도 한다. 해당되는 유적은 송평동 1기(그림 8-5~7), 농포 2기(그림 8-8), 검은개봉(그림 8-9), 호곡 1기 12(ㄱ)주거지(그림 8-10), 자이사노프까 1 유적 일부¹⁷⁾(그림 8-11~14)이다.

송평동유적은 뇌문토기 외에 돌대문토기(송평동 2기)가 존재하므로, 1계열 2식의 하한의 설정은 다음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곡 1기는 신석기 만기와 청동기시대로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본 뇌문토기 2기의 호곡 1기 12(ㄱ)주거지는 종래의 호곡1기와는 다른, 이른 시기로 보고자 한다.

검은개봉유적에서는 뇌문토기와 함께 타래문토기가 확인되었다. 서포항 3기의 타래문토기와 검은개봉의 타래문토기는 형태나 기법에서 차이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타래문토기의 존재를 염두해 둘 때, 서포항 3기에서 뇌문토기가 직접 출토 되지 않았지만, 대략 동북지역 뇌문토기 2기와 같은 위치일 것으로 생각된다. 타래문토기의 영향을 고려하면 검은개봉유적이 호곡 1기의 12(ㄱ)보다는 다소 이른 시기의 것으로 생각된다.

동북지역 뇌문토기 3기는 2계열 2식이 해당되는데, 자이사노프까 1<그림 8-15~19>, 금곡유적 <그림 8-18>, 남연해주 내륙의 레티호프까 04<그림 8-20>유적이다. 특히 레티호프까의 뇌문토기 저부에는 얇은 굽이 생긴다. 기존의 신석기 토기가 평저임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의 자료 중 유일한 예이지만, 청동기시대로 변화해 가는 이행과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뇌문토기가 두만강 유역에서 남연해주-연변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전의 남연해주 일대의 신석기시대는 주로 아무르지역과 영향을 맺어왔으나, 이 시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연해주의 내륙부에는 두만강에서 유입된 새로운 문화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지역 뇌문토기 4기는 2계열 3식에 해당되며, 서포항 4기<그림 8-25·26>, 레티호프까<그림 8-21~24>, 씨니가이 하층<그림 8-29·30>, 꼬로우노프카 1 아래층<그림 8-27·28>, 아누치노 14<그림 8-31>유적 등이다. 서포항유적을 제외하고는 남연해주 내륙에 위치하는 유적이다. 뇌문토기는 남연해주 내륙(아누치노-14)으로 확산되면서 점점 단순화되는데, 문양띠를 그리지 않은 것도 확인된다.

뇌문토기 4기의 하한을 단정 지을 만한 자료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시작에 관한 논란은 지역 학계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 뇌문토기의 지역 구분, 두만강 유역과 남연해주 내부의 하한을 동일하게 보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즉, 뇌문토기가 남연해주 내륙 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최말기까지 존재했을 것이라 판단하지만, 두만강 유역의 경우에는 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동북지역 뇌문토기는 압록강 유역 서북지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서북지역 뇌문토기 2기인 압록강 서안의 석불산유적이나 쌍학리-1기의 유물이 동북지역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영향을 받은 뇌문토기 중, 동북지역에서 가장 이른 형식의 것은 두만강 주변의 것으로 보인다. 두만강 유적의 농포유적에서 동북지역 뇌문토기가 계열 분화되어 연해주 남부 내륙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로서는 자료가 부족하지만 서북지역과 동북지역의 연결 지점이라고 어느 정도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 토성리유적이다. 이 유적은 동북지역과 서북지역의 중간에 위치하며, 출토된 뇌문토기는 서북지역 뇌문2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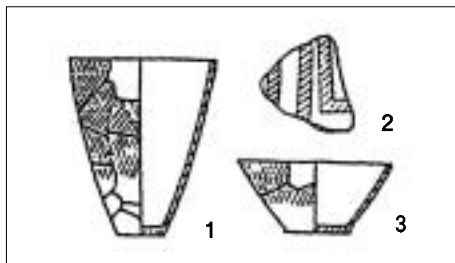


그림 6. 토성리 유적 출토 뇌문토기

토성리 출토 신석기 토기 중에는 종주어골문, 돌류문 등이 보이는 한편, 청동기시대의 유물로는 미송리형 토기도 확인된다. 토성리유적은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고고문화상에서도 양 지역의 문화가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유적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향후 고고자료의 증가가 이러한 점을 보완해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지역적 병행관계

이러한 한반도 동북지역 신석기 후기의 문화 현상이 서북지역 압록강 유역의 영향인 것으로 본다면 요동반도를 포함한 지역적 병행관계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당산유적의 연대는 중국 요동반도 소주산 중층 문화기와 병행하는 것으로 본다(小川靜夫 1982). 또, 상층과 하층으로 나누어 하층은 소주산 중층기, 상층은 오가촌기와 병행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宮本一夫 1985). 당산유적의 연대는 광가촌 IV층(백흥기 1994) 뇌문토기를 근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소주산 중층과 병행하는 광가촌 유적(許玉林 1984)의 절대연대(4870 ± 100 B.P., 5015 ± 100 B.P.)를 근거로 한다면 당산유적의 절대연대는 B.C. 3,000이다.

남경유적 31호 주거지에서는 뇌문토기와 함께 덧띠문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광가촌 II층의 것과 유사하다. 이 토기를 근거로 하였을 때 소주산 상층 유형과 남경유적이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유적의 절대연대는 B.C. 2,000 이상으로 상정할 수 있다.

쌍학리유적은 뇌문토기의 다양함에 따라 1기와 2기로 나누어지고, 쌍학리 1기는 서북지역 뇌문토기 2기에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는 유물은 능형뇌문이나 삼각형뇌문으로, 문양띠 안에 단사선이 채워진 것이다. 이는 요동반도의 석불산, 신암리 1-뇌문 1기와 비슷하다. 따라서 신암리 1기-뇌문 1토기는 소주산 상층과 어느 정도 병행되는 것으로, 소주산 상층보다 아주 늦은 시기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소주산 상층은 요동반도 신석기 마지막 단계이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는 서북지역 뇌문토기 2기는 서북지역 신석기 후기이고, 뇌문토기 3기는 서북지역 신석기 말기에 해당한다. 이미 요동반도가 청동기시대에 진입했음을 볼 때, 압록강 유역과의 차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서북지역 2기의 뇌문토기는 현재로서는 농포유적을 통해서 두만강 유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빠른 유적으로 보인다. 농포유적의 뇌문토기는 1계열과 2계열로 나누어지는데, 1계열은 두만강 유역의 송평동 1기로, 2계열은 두만강 유역에서 남부 연해주로 확산된다.

동북지역 1기의 절대연대는 농포유적이 서북지역 2기의 뇌문토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면, 소주산 상층보다는 늦은 것으로 생각된다.

동북지역 자이사노프카 문화 전 시기에 해당되는 보이즈만유적의 상층은 자이사노프카 문화층으로 알려져 있다(빠뵈프 외 1997). 이 층의 연대와 자이사노프카 1유적의 측정치인 4010 ± 44 B.P.(NUTA2-5282), 3972 ± 31 B.P.(NUTA2-5483)를 참고한다면 B.C. 2,000보다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흥성유적(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1)에서 확인된 뇌문토기는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으나, 대략 문양띠를 단사선으로 채운 것이다. 이 유적의 절대연대(4300 B.P.)로 보아 동북지역 1기에 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지역 뇌문토기 1기와 2기는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후기에 해당한다. 동북지역 뇌문토기 1

기는 서북지역에서도 신석기 늦은 후기에 해당하지만, 동북 2기가 되면 서북지역에서는 이미 신석기시대 말기로 진입한다. 이즈음 요동반도에는 쌍타자 1기 등 이미 청동기시대가 시작되었다.

검은개봉유적과 호곡 1기의 12(ㄱ)주거지, 자이사노프까 1은 동북지역 뇌문토기 2기이다. 검은개봉유적에서는 뇌문토기 외에도 짧은 침선문토기, 타래문토기 등이 확인되는데, 서포항 3기 유적과 비교된다.

호곡 1기는 전체적으로 서포항 4기와 5기 사이에 존재하는 유적으로 보거나(배진성 2003), 동북지역 하층기(호곡 1기-서포항 6기)와 상층기(오동 1기-서포항 7기)로 크게 보는 견해(안재호 2003: 157)가 있다. 호곡 1기가 종래 북한학계에서 청동기시대 최고(最古)로 편년된 이유는 적색마연토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호곡 1기는 신석기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서포항 4기와 5기, 호곡 1기간의 관계가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호곡 1기의 분기 가능성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호곡 1기의 12(ㄱ) 주거지는 호곡 1기 중에 빠른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서포항 4기보다 빠른 단계이다. 연해주의 자이사노프까 1유적도 이 시기에서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신석기 후기의 늦은 단계에 해당된다.

표 9. 지역간의 병행관계

지역 연대	중 국		한반도북부				중 국	러 시 아		
			서 북		동 북					
	요 동		서 북		두 만 강		길 립	남 연 해 주		
B.C 3000	新·後	소주산 중층	新	뇌문 1	?				보이즈만 문화	
B.C.2000 이상	新·末	소주산 상층 석불산	新石器後期	서북 뇌문 2	남경 쌍학리1 토성리 신암리1- 뇌문1기	新石器	동북 뇌문 1	서포항 2기 ? 농포1 계열	영가평 하층 홍성 신석기	보이즈만 문화 ?
B.C 2000 이하	청동기시대	쌍타자 제문화	新石器末期	서북 뇌문 3	쌍학리2 신암리1- 뇌문2기 용연리 도봉리	新石器後期	송평동 1기	농포2계열 검은개봉 (서포항3기) 호곡1-12(ㄱ)住	홍성 신석기?	자이사노프까1 일부
B.C.18			청동기시대	신암리 1기 제3층 문화					新石器末期	뇌문 3
B.C 17							뇌문 4		서포항 4기 ?	

동북지역 뇌문토기 2기의 하한은 3기의 레티호프까 O4유적 절대연대[3610±80 B.P.(COAH-6108) 1839-1829cal B.C., 3400±100 B.P. (COAH-6110)1777-1600cal B.C.]를 참고하고자 한다. 3기의 중심연대를 대략 B.C. 18로 본다면, 2기의 하한은 B.C. 18보다 이를 것이다.

동북지역 뇌문토기 3, 4기는 신석기 말기 단계이다. 뇌문토기 3기는 두만강 유역에서부터 남부 연해주 내륙과 중국 길림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레티호프까 O4유적, 금곡 유적, 자이사노프까 1유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북지역에서는 이미 뇌문토기 단계가 끝나고, 신암리 제 3지점 1문화층 등 청동기시대로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3기 절대연대는 레티호프까 O4 유적 자료를 참고하면, 중심연대는 B.C. 18이고, B.C. 17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동북지역 뇌문토기 4기는 신석기 말기이다. 두만강 유역의 서포항 4기, 연해주의 레티호프까 99, 씨니가이 하층, 아누치노 14-2000 아래층 등이 해당된다.

두만강 유역을 통해 들어온 뇌문토기는 연해주 남부내륙에서는 신석기 말기 끝까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뇌문토기 4기 내의 유적 간 선후관계는 청동기시대로 진입하는 시기와 직결된다. 특히 뇌문토기가 초현하는 두만강 유역에서 뇌문토기의 존속기간은 현재의 자료로는 규정할 수 없다. 이는 서포항 4기 분리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서포항 4기와 남부내륙의 최말기 유적인 아누치노 14-2000 아래층을 동시기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자는 뇌문토기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신석기 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확인된다. 반면 후자는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청동기시대 유물과 함께 일부 신석기 만기 유물이 남아 있다. 뇌문토기 자체도 아주 간소하며 문양띠가 지워진 것으로 보아 최후단계의 자료로 보인다.

뇌문토기 4기의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레티호프까 99(3280±45 B.P.(COAH-4238), 3390±55 B.P.(COAH-4239), 3310±45 B.P.(COAH-4239))¹⁸⁾인데, 보정연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연해주의 내륙 자료이며, 두만강 유역의 신석기 말기와는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

IV. 맺음말

동북지역의 청동기시대 이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이전 시기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첫걸음으로 이 지역 신석기 후기·말기의 뇌문토기를 고찰하였다. 서북지역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동북지역 뇌문토기의 편년은 4기로 나누어지며, 두만강유역을 따라서 남부

18) 씨니가이 유적은 1970년대 발굴로, 알려진 절대연대 측정치가 없다. 아누치노 14 유적은 청동기시대 층의 것만 절대연대 측정치가 있다.

연해주로 퍼져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후기와 말기의 구분과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뇌문토기의 연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외에 중주어골문의 발전과정, 이 토기와 뇌문토기와의 관계 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 초기 설정 문제에 다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화기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본고의 러시아 자료는 필자가 직접 실견한 것이다. 자이사노프카 1유적 유물을 실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 분원 박사과정연구원 수보티나와 레티호프카 유적에서 발굴하고 유적의 유물과 그 외 유물을 실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칼라미에즈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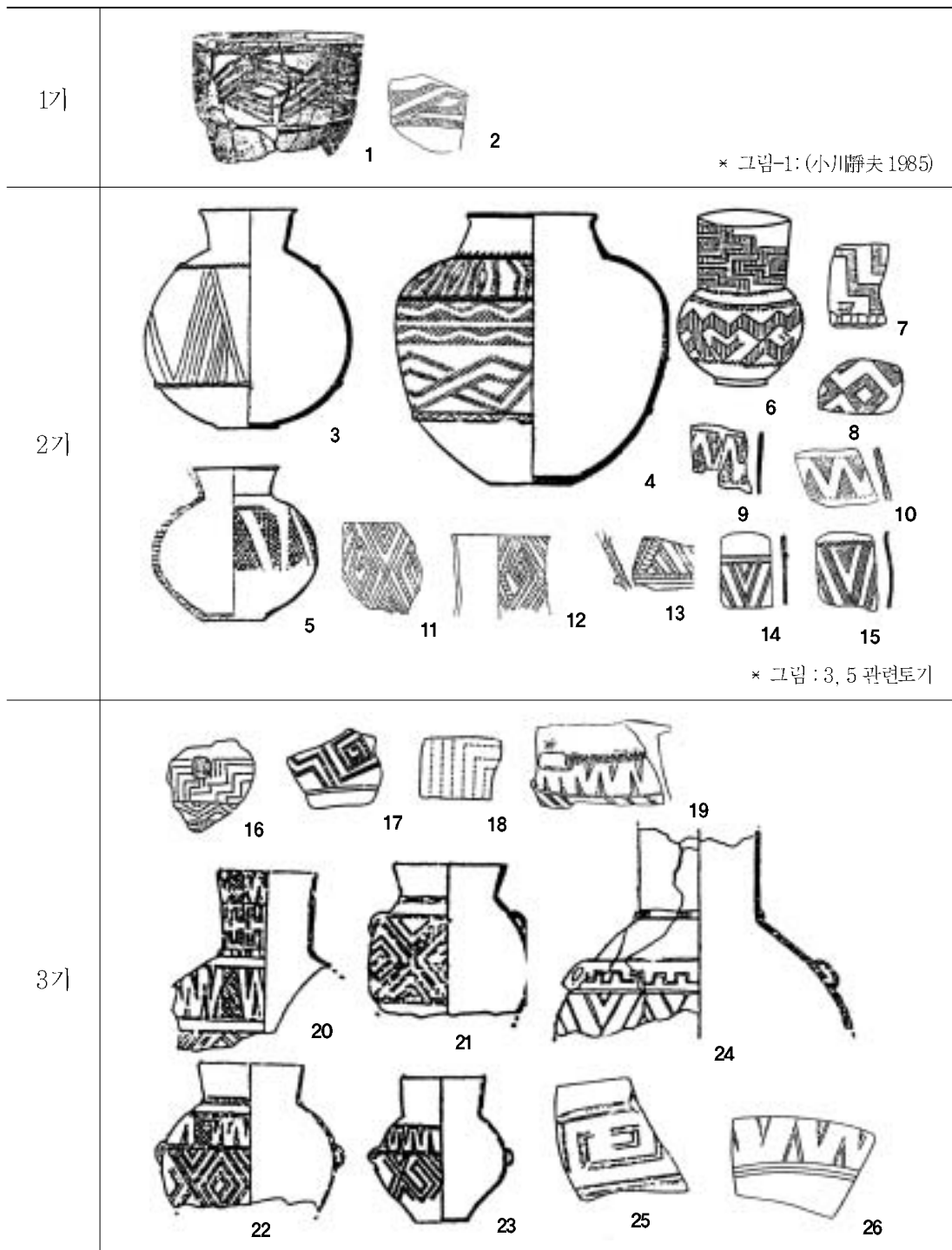


그림 7. 서북지역 뇌문토기 변천

서북 뇌문토기 1기: 당산(1, 2) 서북뇌문토기 2기: 남경(4), 쌍학리 1기(6~10), 석불산(11, 12, 13), 신암리-뇌문1 (14, 15)
 서북 뇌문토기 3기: 쌍학리 2기(16~19), 신암리 1기-뇌문2(20, 21, 22, 23), 용연리(24), 도봉리(2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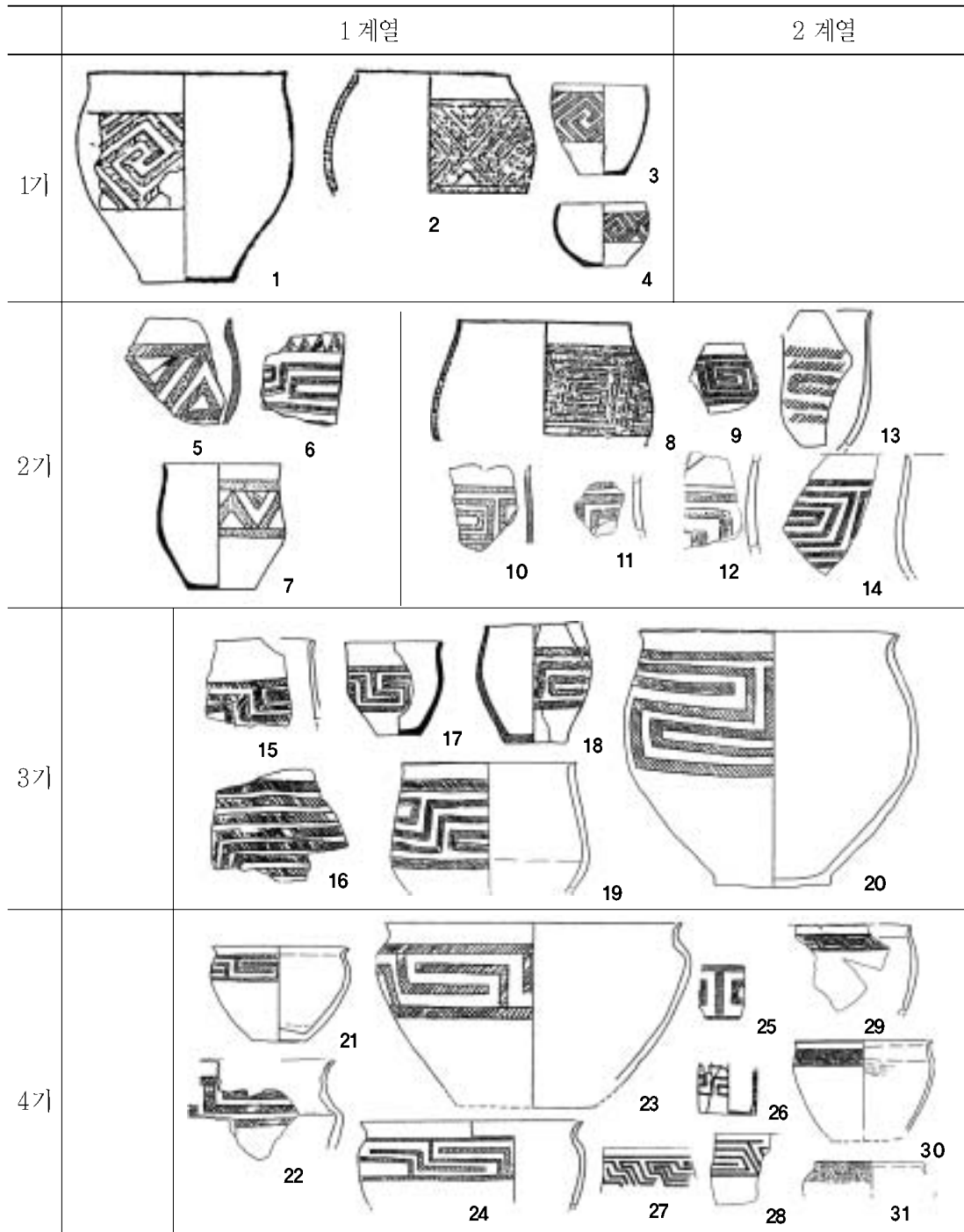


그림 8. 동북지역 뇌문토기 변천

(동북 뇌문토기 1기: 1계열 농포1기(1,2,3,4), 동북 뇌문토기 2기: 1계열-송평동(5,6,7), 2계열-농포2기(8), 검은개봉(9), 호곡1기-12(10), 차이사노프카 1 일부(11, 12, 13, 14), 동북 뇌문토기 3기: 차이사노프카 1(15, 16, 17, 18), 레티호프카 04(20), 금곡 (18), 동북 뇌문토기 4기: 레티호프카 (21~24), 서포항 4기(25,26), 차피고우(고로노우프카 1)- (27~28), 씨니가이 하층(29,30) 아누치노 14-2000 (31)

참고문헌

남한서

- 강인욱, 2005, 「한반도 동북한지역 무문토기의 형성과정」 『강원지역의 청동기문화』, 강원고고학회
金材胤, 2003, 「韓半島刻目突帶文土器의 編年과 系譜」, 부산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재운 외, 2006, 「동북한 신석기 만기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기 양상」 『석헌정징원정년퇴임 기념논총』
白弘基, 1994, 『東北亞 平底土器의 研究』, 學研文化社
裴眞晨, 2003, 「無文土器의 成立과 系統」 『嶺南考古學報』 32
安在皓, 1991,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 경북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安在皓, 2006,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고고학과 박사학위논문
李白圭, 1974, 「京畿道 出土 無文土器·磨製石器」 『考古學』 3
이청규, 1988, 「남한지방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와 공렬토기문화의 위치」 『한국상고사학보』 1
신숙정, 1997, 「신석기시대 유물」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pp.435~446.
千羨幸,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한국고고학보』 57

북한서

- 강중광, 1974, 「용연리유적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강중광, 1975,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번개무늬그릇의 년대에 대하여」 『고고민속논문집』 제6집
김용간·석광준, 1984,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김용간·리순진, 1966, 「1965년도 신암리유적 발굴보고」 『고고민속』 1966-3
김용남, 1961, 「서포항조개무지 발굴보고」 『문화유산』 3
김용남, 1962, 「웅기 굴포리 서포항동 원시조개무지유적 발굴」 『문화유산』 3
김용남·서국태, 1972, 「서포항 원시유적 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 4
도유호, 1960, 『조선원시고고학』
리순진, 1965, 「신암리유적 발굴중간보고」 『고고민속』 1965-3
정찬영, 1983, 「토성리유적」 『유적발굴보고』 13
사회과학원연구소, 1979, 『조선전사』

- 차달만, 1992, 「당산조개무지유적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4
 황기덕, 1962, 「두만강유역의 신석기문화」 『문화유산』 1
 황기덕, 1974, 「무산 범의구석 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 6

일본서

- 宮本一夫, 1985, 「中國東北地方における先史土器の編年と地域性」 『史林』 68-2
 小川靜夫, 1985, 「極東先史土器の一考察」 『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紀要』 1
 大貫靜夫, 1992, 「豆滿江流域を中心とする日本海沿岸の極東平底土器」 『先史考古學論集』 第2集, pp.47~78.
 橫山將三郎, 1934, 「油坡貝塚に就いて」 『小田先生頌壽紀念朝鮮論集』
 藤田亮策, 1930, 「櫛文文様土器の分布就きて」 『靑丘學叢』 2

중국서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自治州博物館, 2001, 『和龍興城』, 文物出版社
 許玉林, 1984, 「大蓮市郭家村新石器時代遺址」 『考古學報』, 1984-3
 許玉林, 1990, 「遼寧省東溝縣石佛山新石器時代晚期遺址發掘簡報」 『考古』 7
 許玉林, 1994, 「試論朝鮮半島新石器文化及基 遼東半島原始文化之系」 『東北亞文化研究』
 于匯歷, 1991, 「吉林省金谷新石器時代遺址清理簡報」 『北方文物』 1991-1

러시아서

- Андреев Г. И., 1957, *Поселение Засановка 1 в Приморье,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1957-2*, АН СССР (안드레예프, 1957, 연해주 자이사노프까1 유적)
 Андреев Г. И., 1960,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культур южного Приморья III - I тысячелетий до н.э.* (안드레예프, 1960, 기원전 3천년-1천년기 남연해주 문화에 관한 제문제)
 Андреева Ж. В. Алексеев В.П. Алексеева Э.В. Вострецов И.С. Горшков а И.С. Жушиховская И.С. Ключев Н.А. Кононеко Я.В. Кузьмин В.Д. Худким, 1991, *Неолит юг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ревнее поселение в Пещере Чертовы Ворота*, Наука (안드리에바 외, 1991, 남극동의 신석기시대: 초르타비바로따 동굴유적)
 Бродянский Д. Л., 1969, *Южное Приморье в эпоху освоения металла; а то-реф. дисс... канд ист. наук/НГУ.Новосибирск* (브로단스끼, 1969, 초기 금속기시대의 남연해주, Ph.D학위논문 요약문, 노보시비리스크)
 Бродянский Д. Л., 1973, 'Неолит и Бронзовый век Приморья в свете рет проспективного

- метода *Проблемы этногенеза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овосибирск* (브로단스키, 1973, '회고해보는 연해주 신석기와 청동기시대', 시베리아와 극동 민족의 제 문제)
- Бродянский Д. Л., 1987, *Введение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ую Археологию*, Владивосток (브로단스키, 1987, 극동의 선사시대)
- Брей У., Трамп Д. 1990,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Москва (브레이·트람프, 1990, 고고학사전)
- Вострецов Ю. Е., Гельман Е. И. Кумамото М, Миямото К, Обата Х., 2003, *Новый керм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неолитического поселения Кроуновка 1 в Приморье,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и палеоэкологии Северной, Восточной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Из века в век», посвященной 95-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академика А. П. Окладникова и 50-летию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РАН,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н-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86-93* (보스뜨레쥬프 외, 2003, 연해주 1로노우프카 1유적의 신석기시대 새로운 토기유형)
- Гарковик А. В., 1989, 'Новый неолитический памятник Бголюбовка 1', *Древние культур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поиск) Препринт*, Владивосток (가르코빅, 1989, '바갈류보프카 1 새로운 신석기 유적', 소련 극동의 선사문화, 블라디보스톡)
- Гребенщиков А. В., 1990, 'Необычные сюжеты в орнаментике традиционной гончарства приамурья в эпоху раннего железа', *«СЕМАНТИКА ДРЕВНИХ ОБРАЗОВ»*,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Сиби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그레벤쥬코프, 1990, 철기시대 연해주의 토기 문양전통에서 비상한 주제, 고대형태의미론)
- Максименков Г. А., 1978, *Андроновская культура на Енисее Л.* (막시멘코프, 1978, 에네세이 강의 안드로노보 문화)
- Попов А. Н. Чикишева Т. А. Шпакова Е. Г., 1997, *Богосманска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Южного Приморья* (빠포프 외, 1997, 남연해주의 보이즈만 고고문화)
- Окладников А. П., 1958, *Отчет о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1957г.* (오클라드니코프, 1958, 1957년 극동 고고학연구)
- Окладников А. П., 1970, 'Неолит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менный век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 (오클라드니코프, 1970, '소련의 시베리아와 극동의 신석기시대', 소련의 석기시대)

- Косарев М. Ф. 1981, *Бронзовый век Западной Сибири*, Москва : Наука (까사레프, 1981, 서시베리아의 청동기, 모스크바)
- Клюев Н. А. Слепцов И.Ю. 2000, *Раскопки поселения Ануцио в Приморье в 1999 году Владивосток*(끌류예프 외, 2000, 1999년 아누치노유적 발굴)
- Клюев Н. А. 2001, *и поселения Новоселеще-4 и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археологии Приморья(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끌류예프, 2001, 노보셀리췌-4 유적과 연해주 고고학의 문제점)
- Коломиец С. А. Батаршев С.В., Крутых Е.Б., 2002, *Поселение Реттиховка-Геологическая: хронология, культурная: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칼라미예츠 외, 2002, 레치호프카-게올로기체스카야 유적: 연대와 문화특성)
- Жушиховская И. С. 2004,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древнего гончарств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쥬쉬호브스카야, 2004, 러시아 극동의 고대 토기 제작 역사개론)
- Яншина О. В. Клюев И. А., 2005, *Поздний неолит и ранний палеометалл Приморья: Критерии выделения 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Ро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Владивосток*.(얀쉬나 · 끌류예프, 2005, 연해주의 후기 신석기와 초기 금속기시대 -고고학유물의 분리문제와 고고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영문서

- Kumamoto university · Institute of History, Archaeology and Ethnography of the Peoples of the FAR EAST, Russian academy of science, FAR EASTERN BRANCH, 2004, Krounovka 1 site

Formation Process of Pottery with Lightning Design in Northeast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Kim Jae-youn

This paper is aimed to study the late Neolithic Age in North Korea in order to closely examine a transition process into the Bronze Age in the Korean peninsula. Thus, the pottery with lightning design was selected as target data. Since the pottery with lightning design is fundamental data that North Korea's archeologists have used for chronological recordings of the late Neolithic Age in the northwest region, the parallel relationship between the eastern and the western region was established with comparison of pottery with lightning design in the northeastern region.

The examination focuses on data that cover the target region of the pottery with lightning design of the adjacent Southern Primorskii region including the counterpart of the northwestern and the northeastern region. As a result, some attribute analyses revealed that the pottery with lightning design was affected by the counterpart of the northwestern region near the Yalu River.

Prior to genealogical and chronological recordings of the pottery with lightning design in the northeastern region, the pottery with lightning design in the northwestern region was recorded chronologically in order to examine its specific development process. Consequently, in the second period of the Neolithic Age, the pottery with lightning design in the northwestern region was assumed to have an impact on the counterpart in the northeastern region.

The classification of the pottery with lightning design in the northeastern region shall be based on 4-period development. According to this classification, the pottery,

which was found in the Tumen river basin, was thought to belong to the first period. The pottery went through genealogy differentiation in the second period and when entering into the third period, the pottery spread to inland of south Primorskii. The pottery was assumed to exist in the southern Primorskii region until the tip end (the fourth period) of the Neolithic Age. It is assumed that considering the fact that climate change led to the agriculture movement, Zaisanovka culture, i.e. the late Ne Neolithic Age, moved to the southern Primorskii region along the Tumen River basin.

Keywords : Northwestern region, Northeastern region, 4-period development, Pottery with lightning design, Zaisanovka culture

(1) Doctorate course in Institute of History, Archeology, and Anthropology of Far East Branch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